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5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주·완주 권역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실은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같은 날 김제예술회관에서 열린 '김제·부안 권역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하고 설 선물도 받으세요'

전북자치도, 설 명절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30명 추첨 장수사과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기존 혜택을 추가 혜택을 더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기부 사이트(www.ilovegohyang.go.kr) 또는 NH농협에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총 30명을 2월 21일에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답례품 중 하나인 장수사과(3kg)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경품으로 지급되는 장수사과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중 가장 인기를 끈 상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이벤트를 통해 인기 답례품을 추가 제공해 전북자치도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기부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되돌려 드리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기부자 분들께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과 함께 새 역사 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갈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정에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방향과 비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수렴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완주군은 25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국주영은 도의장과 서거석 도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정운천 국회의원, 이기동 전주시의장, 서남용 완주군의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양 지역 주민 1,000여명이 보고회장을 찾아 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 전주완주·김제부안

김관영 지사, 비전·추진방향 설명하며 도민의견 수렴

지역 주민들 대거 참석... 특별자치도 기대감·관심 표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산업과 관련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수소경제 이용 촉진 특례 등 전주시에 완주군에 해당되는 주요 특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주시에 완주군과 함께 추진해야 할 협력 사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보고회에서 "단순

이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면서, "도민이 잘사는 것,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의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하는 농생명, 문화관광 등의 분야 관련 특례를 활용한 전주시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발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특례 발전 전략으로 농생명 분야에서 도도동 미래 농업 클러스터 조성, 반려동물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 야간경제 관광특구 조성, 영화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산업단지 조기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도시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같은 날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부안권역 도민보고회가 열렸다. 김제·부안권역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황영석 도의원, 내인권 도의

원, 김정기 도의원, 김솔지 도의원, 황배연 김제시의회 부의장,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역 주민 700여명도 보고회장을 찾아 새롭게 태어난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10면>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례 발전 전략으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김제 관아 야간콘텐츠 개발사업, 심포마리나 및 배후개발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수소연료전지 연구기관 거점화 등으로 부안형 수소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서해안권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낚시여가특구 지정 등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김제클러스터 조성 등 농생명지구내 진흥사업을 적극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는 29일 남원, 30일 익산과 군산, 2월 2일은 정읍, 5일은 장수에서 계속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소중한 전북 체육의 역사를 보존·관리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체육 소장품 기증 동참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성훈 대한체육회 정책자문위원(전 원광대 체육교육학과 겸임교수)은 소장 가치가 높은 체육 소장품을 도 체육회에 기증했다.

기증한 소장품은 19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제작됐던 12폭 병풍을 비롯해 올림픽 기념메달,

88올림픽 기념 12폭 병풍, 전북체육회 품으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지, 각종 기념품이 모아진 액자 등이다.

전북자치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정성훈 기증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증증서를 전달했고, 기증된 소장품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 활용하게 된다.

정성훈 기증자는 "체육회가 추진중

정성훈 전 교수, 소장품 기증

인 체육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너 많은 체육 소장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북체육역사기념관 TF 위원장인

문승우 전북도 의원은 "기증된 소장품들은 감히 가치를 매길 수 없을만큼 가치가 높다"며 "전북체육 발전에도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먼저 흔쾌히 기증에 동참해주신 정성훈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북체육역사를 잘 관리하고 보존시켜,



후배 체육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원로 체육인, 프로 선수 등의 체육 소장품 기증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뉴시스

▶ 정성훈 대한체육회 정책자문위원(사진 가운데)이 25일 전북체육회에 88올림픽 한정판 12폭 병풍 등을 기증했다.

